'眞如', 대승불교의 가장 이상적 개념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불교의 구경 목적인 깨달음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경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온다. 기신론에서 쓴 진여라는 말을 다른 경전에서는 달리 호칭하고 있다. 이를테면 금강경에서는 '반야'라고 하고 능엄경에서는 '여래장묘진여성'이라 하였다.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 하였으며 또한 '대다라니'라 하였다.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一眞法界)' 혹은 '법성(法性)'이라 하였다. 그 외에도 흔히 말하는 '불성(佛性)', 선가에서 주로 말하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할 때의 '마음' 등이 쓰인다.

이 가운데 진여라는 말이 대승불교의 시작과 함께 쓰인 가장 이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다. 산스크리트 'tathata'를 번역한 말로 현상계 배후에 있는 우주 만유에 보변(普遍)한 본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참되고 한결같은,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이란 뜻을 가진 단어다. 이것은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진실한 실상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되었다. 종파에 따라 진여의 설명에 차이가 있었으나 진여연기설을 내세운 기신론에서는 진여를 활동하는 동적인 것으로 보았다. 무명의 연(緣)을 만난 진여 자체가 그대로 움직여 생멸 변화하는 만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진여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 하여 이것을 물과 파도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물이 바람에 의해 움직여 파도가 일어났으나 파도가 바로 물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하여 진여문, 생멸문을 나누어 중생의 마음 곧 일심을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근본을 진여라 하고 이 진여가 아뢰야식으로 전환되어 그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이 있으므로 파도가 생긴다'와 같이 '진여가 있으므로 생각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삼세(三細), 육추(六 ㅣ)의 구상차제(九相次第)가 설명되면서 중생이 없을 지어 과보를 받는 이치를 밝힌다.

진여가 무명에 의해 움직여지는 최초의 상태를 아려야식(阿黎耶識)이라 하고 이를 진여와 같이 놓고 볼 때 비일비이(非一非異)라고 정의를 내린다. 비일(非一)이란 고요하던 상태와 움직이는 상태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요, 비이(非異)란 고요하고 움직임이 동정의 상태가 다르나 그 본체는 다르지 않는 하나라는 말이다. 진여가 움직인 것은 물이 움직인 것과 같으므로 물이 움직였다 해서 물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다.

삼세육추는 業의 근본 원리
만사가 이를 벗어나지 않아

한역 경론에서 행위의 능동적인 주체를 능(能)이라 하고 피동적인 객체를 소(所)라 하여 이 능소(能所)를 주객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왔다. 전상 다음에 현상(現相)이 있게 된다. 경계 곧 대상이 나타나는 상태다. 이 세 가지 양상을 삼세(三細)라 부르며, 이 삼세가 아려야식 본식(本識) 안에 들어 있는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삼세의 과정은 의식작용이 표면화되지 않는 상태 곧 잠재적인 상태라 볼 수 있다.

삼세(三細)에서 육추로 진여가 움직여진 생멸은 점점 더 거칠어진다. 이는 생각이 표면화되어 업이 지어지는 과정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①지상(智相)은 가장 낮은 단계의 분별 의식작용을 말한다. 객체를 보고 주객의 대립을 야기 시키는 단계이다. ②상속상(相續相)은 지상에서 생긴 분별이 증애의 감정이 되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고락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다음 ③집취상(執取相)은 앞의 상속상 때문에 그때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집착이 생기는 단계이다. ④계명자상(計名字相)은 허망된 집착이 더욱 커지면서 그 위에 다시 이름을 붙이고 말을 만들어 더욱 조잡한 아집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⑤조업상(造業相)은 집착으로 인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 선악의 업을 짓는 단계이다. ⑥수보(受報)는 업계고상(業繫苦相)으로 업을 지어 그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업을 지은 결과 그 업에 속박되어 괴로움을 면치 못하게 되는 상태다. 여기에 인과의 이치가 적용되며, 이것으로 중생들의 삶의 괴로움이 설명되는 것이다. 진여에서 염연기(染緣起)로 시작되는 삼세육추의 과정은 중생의 업이 지어지는 근본 원리를 밝혀 놓은 것이다. 세상만사, 인간만사가 이 삼세육추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생사 떠난 모습이 바로 '法身'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⑯육신 희사한다는 것은

語乞者言。汝今為我取不壞身。使我得堅牢身。汝恩極重。何以可報。未來世中捨身之果æ 用施汝。我為救濟一切眾生故捨於身命。捨身者得於法身。得法身者得一切種智。使一切眾生皆得此果。捨此身者得於法身。法身者能與一切眾生利樂。能如此思惟。云何不生喜樂速捨此身。菩薩捨身時作是思惟。我為眾生作親友者。我以度生死。應度一切眾生脫於生死。以是故我今捨身。菩薩作是思惟。我此捨身功德不屬悲眾生數。還以養我功德法身。若心如是決定之時捨身無有難相。菩薩捨身所以不難。以當成法身故。是故歡喜。(어걸자언。여금위아취불견신。사아득견뢰신。여은극중。하이가보。미래세중사신지과즉용시여。아위구제일체중생고사어신명。사신자득어법신。득법신자득일체종지。사일체중생개득차과。사차신자득어법신。법신자능여일체중생이락。능여차사유。운하불생희락속사차신。보살사신시작시사유。아위중생작친우자。아이도생사。응도일체중생탈어생사。이시고아금사신。보살작시사유。아차사신공덕불속비중생수。환이양아공덕법신。약심여시결정지시사신무유난상。보살사신소이불난。이당성법신고。시고환희。)

번역

구걸하는 이가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나에게 견고하지 않은 육신을 취하여 나로 하여금 견고한 육신을 얻으라 하느뇨? 그대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어찌 보답을 할꼬? 미래의 세상에는 육신을 희사한 과보로 그대에게 보시하며 쓰리라" 합니다.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육신과 생명을 희사하거니와 육신을 희사하는 이는 법신을 얻으리라. 법신을 얻는 이는 일체 지혜 씨앗을 얻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 과를 얻게 하리라. 이 몸을 버리는 희사하는 이는 법신을 얻고, 법신을 얻은 이는 능히 일체 중생에게 이익과 기쁨을 주리라" 능히 이와 같이 사유하기를, "생에 얽매이지 않는 기쁨으로 속히 이 육신을 버릴꼬"하며, 보살이 육신을 희사할 때,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위하여 친구가 되고, 내 생사를 건넘으로써 응당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생사를 벗어나게 하리니, 이로써 내가 지금 육신을 희사하리라" 합니다.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육신을 희사한 공덕으로 자비롭게 중생의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도리어 내 공덕의 법신을 기르리라" 합니다. 만약 마음이 이와 같이 결정했을 때 육신을 희사하면 어렵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보살이 육신을 희사할 때 어렵지 않은 것은 마땅히 법신을 이룸이요,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해설

〈대반야바라밀다경〉 54권에 수보리는 어찌해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섬기는 것이 되겠느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선현이여, 만약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을 두루 이익되게 하려면 법과 뜻과 나아감에 여실하게 분별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아야 법으로써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긴다고 부르느니라. 또한 진실로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관찰하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응당 원만하게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과 세존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며 여래의 몸을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이니라."

제바보살은 본문을 통해 육신이 아니라 법신을 보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즉, 중생을 두루 이익되게 하려고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모인다. 즉, 생사를 떠난 모습이 법신임을 알려준다.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가 부처님의 법이며, 불법의 뜻이며, 나아갈 바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여래의 몸을 여실히 관찰하는 것이라는 말과 상통을 이룬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장터 순례

재래시장은 열려있는 진리의 세계이다. 화엄의 바다이다. 교과서의 활자 숲이다. 재래시장 순례는 내게 있어 또 하나의 성지순례이다.

나는 장터 구경을 성지순례처럼 즐긴다. 짬짬이 이곳저곳의 전통시장을 떠도는 장돌뱅이 스님이다. 장터에서 배우고 장터에서 길을 찾는다.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감사함과 고마움도 배우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마음의 풍요와 넉넉함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좋다. 싸구려를 외쳐대는 장사꾼도 있고 깎고 또 깎는 깍쟁이 밉상도 끼어있기 마련이다.

선글라스 장사는 앞 조끼에 가득 갖가지 안경을 매달고 다니면서 물 건너온 진품이라며 떠벌려도 밉지 않다. 품바 차림의 엿장수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거칠면서 야한 상소리도 풍자극의 대사처럼 거부 반응 없이 들려온다. 전자제품 고친다는 돋보기 할아버지, 칼 갈아준다는 아저씨에 이르기까지 장터 사람들은 누구나 활기차고 아무나 바쁜척하며 시간 밖으로 떠돌아다닌다.

막걸리 한사발이면 극락이 빠르게 다가오고 짜장면 곱빼기면 배부른 풍요가 배꼽 부근에서 춤을 춘다.

뻥튀기는 뻥튀기 아저씨의 전유물이 아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뻥튀기 버릇이 있다. 중국산 농산물이 곧장 한국산 토종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보세품이나 짝퉁이 진품이나 수입산으로, 가짜가 진짜를 주눅들게 하는 곳도 장터만의 풍경이다.

검정고무신에 담긴 추억처럼 쏠쏠한 재미를 찾아 시장의 뒷켠까지 오게 되면 미니동물시장도 만나게 된다. 귀엽고 예쁜 강아지와 아기고양이가 새 주인을 기다리며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모습은 언제 봐도 마음이 무겁고 짠하다. 준비해간 빵과 물로 강아지와 고양이의 엄마노릇을 잠시 하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 좋은 환경에서 탈 없이 자라길 염원해본다.

인도와 네팔 등 해외에 머문 15년 동안에도 내가 즐겨찾는 수행도량은 그 나라의 재래시장이었다. 해변에 있든 산촌에 있든 오지에 있든 재래시장은 지친 나그네의 안식처로 다가왔다. 인도의 다르질링이나 마날리에 있는 재래시장에서는 몇 개월씩 머물며 길거리의 움직이는 수행을 이어갔다. 시장바닥은 시끌벅적 소란스러웠으나 마음은 편하고 하릴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배는 고팠으나 풍요를 누리는 곳이 재래시장이었다.

라다크의 '레' 라는 곳의 전통시장에서 두 달 가량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티베트 스님이 죽음을 예견하는 비법 아닌 비법을 내게 일러 주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몸짓으로 손짓으로 거듭거듭 일깨워준 장의학(藏醫學, 티베트의학)에 흥미를 느껴 티베트에서 3년을 머물게 된다.

전통시장은 내게 있어 움직이는 수행장소였다. 외로운 나에게 마음을 덮어주는 도반이었고 좋은 스승이었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순수하고 진솔하다. 가진 것은 적지만 다투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땀방울로 행복을 일구는 모습이 아름답다. 전통시장의 저잣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고향사람 같고 친척 같고 경전의 움직이는 활자 같다. 〈화엄경〉과 〈법화경〉에 담긴 진리를 저들은 몸짓으로 풀어대며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진리는 장터·저잣거리에 널려 있다
감춤 없는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진리는 장터 바닥, 저잣거리에 널려 있음을 알아야한다. 장터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살아 움직이는 '조사어록(祖師語錄)'이다. 흥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화엄의 바다로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에서 늘상 느끼는 일이지만 사람 사는 냄새, 오고가는 정이 넘쳐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가진 게 없어도 넉넉할 수 있고 배운 게 없어도 당당할 수 있다. 재래시장에 오면 누구나 펼쳐진 〈화엄경〉을 만날 수 있다. 53선지식과 대화할 수 있다.

팍팍하고 고단한 삶이 꿈과 희망으로 영글어가는 평화의 공동체가 재래시장이기 때문이다. 장터바닥에는 늘 수줍은 진리가 겸손하게 널려있다. 드러냄과 감춤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열린 세계가 생활의 파편을 털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장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처럼 부활해 눈물방울로 떠다닌다. 재래시장은 소시민의 천국이다. 누구나 왕이 되는.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